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2024. 11. 24(나해) / 제2127호

죄
의
에
내
목
소
로
들
는
다
속
한
사
람
은
누
구
나

요한 18장 37절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다니 7,13-14

화답송 | 시편 93(92),1ㄱ-1ㄷ-2,5(㉠ 1ㄱ)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 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제2독서 | 묵시 1,5ㄱ-8

복음 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요한 18,33-37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우리는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가 전하는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대축일입니다.

독서의 말씀대로 희망하고 기도하기 위한 조건이 복음에서 전해집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느님 사랑 안에 속하기 위해 애쓰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축일의 본기도를 통해 다시금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임금이신 사람의 아들

글 | 강유빈 도미니코 신부(태평동 본당 주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저의 ‘놀이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집에서 놀다가 심심해지면 아버지께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하기 일쑤였고, 제 눈에 ‘큰 산’처럼 보였던 아버지가 ‘비행기 놀이’를 해주시면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이렇듯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큰 산’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었던 때,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아버지가 ‘큰 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덩이처럼 딱딱히 굳은 어깨의 감촉만이 느껴졌죠.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면서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시면, 훨씬 부드러워진대요.”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시면서, “아빠가 한의원에 갈 시간이 어딤어. 아들이 이렇게 종종 주물러 줘.”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여느 아들들이 그렇듯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어깨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게’이자 ‘희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돌처럼 굳은 아버지의 어깨에 놓인 ‘무게’와 ‘희생’ 덕분에 그동안 가족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었음을 두 손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을 지내다보면, ‘예수님’과 ‘왕’이라는 단어가 ‘씩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제1독서만이 아니라, 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스스로 박해를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속한 나라의 임금은 우리를 옹아매고 옥죄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박해를 견뎌내고 섬기는 왕’이심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백성’을 ‘땅’에 ‘임금’을 ‘하늘’에 빗대기도 하는데, 영성가 안셀름 그윈 신부님에 따르면, 독일어에서 ‘하늘’이란 말은 온몸을 감싸는 ‘셔츠’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과 같은 임금이신 예수님은 백성인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심도 함께 떠올릴 수 있겠죠. 선배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된, 한 단상을 나누며 이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어떤 의미에서)하느님은 ‘빛의 하느님’이 아닌 ‘어둠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눈은 어둠기에, 누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은 사랑스러운 자들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일치 그리고 친교의 나눔인 '평화의 인사'

글 | 김일권 요한 사도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미사 때 가장 목소리가 크고 밝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도 파견의 응답인 “하느님 감사합니다!”이며, 그 외 한 곳을 더 선택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빕니다!”일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모든 신자의 얼굴에 미소와 생기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분위기를 돋우는 ‘평화의 인사’를 미사 시작 때 한다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의 기도 후에 나누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일까요?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참조: 마태 5,23-24). 이러한 이유로 초대 교회는 이 예식을 예물봉헌 전에 실행하였습니다. 동방교회는 지금도 이 전통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대 그레고리오 교황(540-604)에 의해 평화 예식이 지금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평화 예식이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청원의 확장이며, 영성체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기도를 영성체를 위한 합당한 마음의 준비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성체로 주님과 일치하려면, 우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 예식은 주님의 기도 다음에 자리하여 우리의 영성체를 직접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평화 인사를, 사제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그대로 전합니다. 교우들도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말하며 사제에게도 같은 평화를 전합니다. 이어서 사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말하며 평화 인사를 권합니다. 교우들은 “평화를 빕니다.”라고 외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나누는 ‘평화’는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느끼는 평화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얻은 평화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치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가벼운 절이나 악수 및 포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평화의 인사로 가벼운 절을 한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2항)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평화가 단순한 인사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일치 그리고 친교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에게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St. Catharina
by Claudio Coello in the Meadows Museum
of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in Dallas, Texas

순교로 신앙을 증거한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가타리나 (축일 11월 25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가타리나(?~310년)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 만든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 세계 최대의 도서관,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철학, 수사학, 문법, 논리학, 기하학, 천문학 등을 배워 최고의 교양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통치자는 후에 로마 황제가 된 막시미누스였습니다. 무식하고 독선적이었던 그는 시민들에게 로마의 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타리나는 막시미누스에게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숭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막시미누스는 가타리나의 젊고 아름답고 똑똑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가타리나를 궁전으로 데려와 또다시 로마의 신을 숭배하라고 했지만, 가타리나는 로마의 신이 왜 우상이며 하느님이 왜 진정한 신인지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막시미누스는 가타리나의 언변을 당해낼 수 없어 최고의 학자들을 소집해 가타리나와 토론을 벌이게 했습니다. 토론을 앞둔 가타리나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가 토론에서 이길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은 너의 말을 듣고 모두 개종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로 순교할 것이다.” 토론이 끝나자 실제로 그들은 모두 개종했습니다. 막시미누스는 울화통이 터져 그들을 모두 불에 태워죽였습니다.

막시미누스가 “나와 결혼하면 온갖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가타리나는 단호하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시미누스는 화가 나 가타리나를 감옥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보내 감옥에 음식을 날라다주었습니다. 막시미누스는 가타리나에게 마지막으로 “고문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로마의 신을 믿을 것인지 택하라.”고 했습니다. 가타리나가 고문으로 죽겠다고 하자, 막시미누스는 쇠갈퀴가 박힌 바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죽는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돌아가며 날카로운 못이 가타리나의 살을 파고들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 바퀴를 산산조각내 버렸습니다. 막시미누스는 다시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칼이 가타리나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목에서 ‘하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가타리나는 눈을 감으며 “하느님, 이 물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젖 줄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희생을 입을 것이다.”

(묵시 3,5)

2025년 정기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희망의 순례자들(Pilgrims of Hope)’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정기 희년을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올해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성문 개방을 시작으로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성문을 닫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사원은 이 기간에 지침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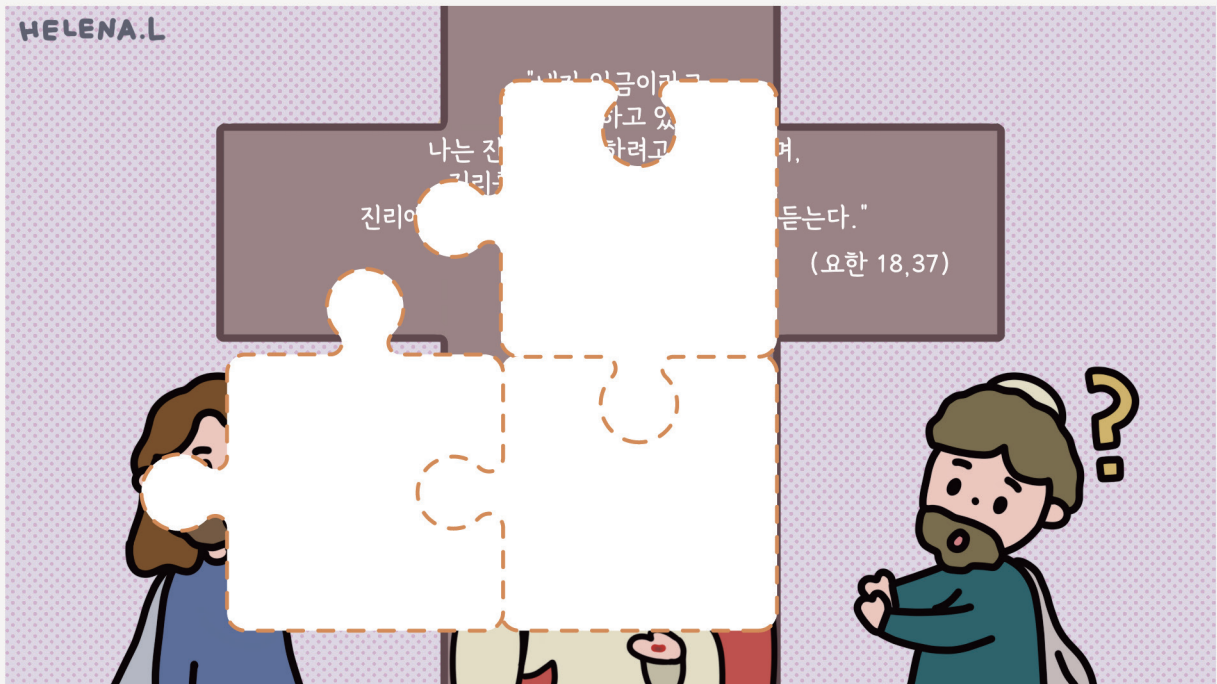
▲ 확인하기

<희년 기간 중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례 형식>

- 신자들은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그곳에서 봉헌되는 미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또한 주교좌 성당 또는 교구 직권자가 지정한 성당이나 순례지, 국제 또는 국가 순례지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을 순례하면 됩니다.
-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해 적절한 시간 동안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합법적 양식의 신앙 고백(신경)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 경건한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 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한다면, 통상적인 영적·성사적·기도 조건을 따르면서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삼감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응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단계에서 생명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사업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 이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위한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은 이번 희년 동안 가장 적절한 날, 주교좌 성당과 개별 희년 성당들에서의 주요 거행 때에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으며, 이 교황 강복을 받는 신자들은 통상적인 조건 아래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오늘의 복음말씀(요한 18,33-37)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한 달 동안 모은 퍼즐 조각으로 그림을 완성시켜주세요!



퍼즐을 맞춰 응모하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하러 가기 ▶

※ 정답과 당첨자는 12월 1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모하러 가기

SW 쿠키

강신원 베드로 作

그리스도왕
대축일



당신 목숨까지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예수님 사랑을
다시 생각해본
그런 시간



금주에 기억할 사제



이규철(노동자 요셉) 신부
2019년 11월 27일 선종

수원화성순교 성지 12월 순교영성 피정

일시 12.6(금) 14:00~17:0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북수동 성당)
4층 대강당
주제 순교와 사랑
강사 강석진 신부
찬양 도미노 찬양단
미사 최진혁 신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2024년 수원교구찬양사도협의회
발걸음 미사

일시 11.30(토) 15:00
장소 교구청 지하강의실
내용 수원교구찬양사도협의회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대상 찬양미사 참여를 희망하는 교우
문의 031) 360-7921
(재)대건청소년회 사무국

젊은이 기도모임

‘열린 찬양 미사’, ‘열린 찬양 기도회’
열린 찬양 미사
일시 12.7(토) 16:00~18:00
열린 찬양 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20:00~22:0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세례받은 청년
기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모임’ 검색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생태영성 월피정

일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00~16:30
장소 수리산 성지 고택 성당
비용 2만 원
참고 15명 선착순
문의 031) 465-8311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상설고해소

북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가톨릭전례꽃꽂이 연구회
11월 월례미사 및 교육

일시 11.25(월) 10: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참고 cafe.naver.com/floralliturgy
문의 010) 6278-2488
수원교구 가톨릭전례꽃꽂이 연구회

토요 치유 피정

일시 12.7(토) 13:00~16:3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성령새신 기도의 집
강의 마진우 신부
미사 마진우 신부
대상 누구나(개인컵 준비)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가정선교회 12월 피정

일시 12:30~17:00
장소 가톨릭회관 1층, 3층 강당(명동)
성가정 영성 피정
일시 12.4(수) 맹진학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일시 12.7(토) 한연흥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일시 12.21(토) 홍성남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문의 0505) 091-0523 가정선교회

ICPE 정체성 피정

일시 12.21(토)~22(주일)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
대상 모든 신자
문의 010) 9149-0052(ICPE카톡 플친)
ICPE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12.7(토) 09:00~11:30
장소 대건청소년회관(권선동 성당 내)
미사 허현 신부
문의 031) 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여성연합회 송년 감사미사 및 특강

일시 12.12(목) 13:00~17: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대상 여성 신자
주제 구원을 위한 기다림
강사 김재덕 신부
미사 16:00 김태완 신부
미사 중 특별봉헌
비용 1만 원
계좌 신한 131-002-037976 여성연합회
문의 031) 242-1379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영성피정

일시 12.9(월) 13:00~16:3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의실
대상 모든 신자
강의 한연홍 신부(미사)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자연순례
일시 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2.15~17

연말연시

일시 12.29~1.1(한라산 눈꽃산행)
내용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접수 중)
문의 02) 773-1455, 064) 796-418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

한라산포함
일시 1.17~19, 1.23~25
2.8~10, 2.14~16, 2.22~24

연말연시(한라산 눈꽃산행)

일시 12.30~1.2

성지순례

일시 3.1~4, 3.9~12
내용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문의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 면형의 집(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교육·모집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11.11(월)~2.14(금)
참고 <http://ci.catholic.ac.kr>
문의 02) 745-8339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부)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일시 12.10~24 매주 화요일 13:30~16:30
장소 한국음악치료연구소(대청역)
회비 15만 원
문의 010) 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488차

일시 12.27(금)~29(주일)
장소 아론의 집(성 라자로 마을)
대상 혼인한지 2년 이상된 부부
참고 www.suwonme.or.kr
문의 031) 251-2258 수원ME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일 13:3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4층
대상 37세 이하 세례자, 예비신자 남녀
전공 무관
참고 카카오픈채팅, 카카오픈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 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기 타

국내 해외 성지순례

일시 12.14 아시아 성모님 발현지
베트남 다낭 3박 5일
25.3.17 성모님 발현지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0박 12일
문의 031) 706-9175 비안네성지순례

가톨릭여행사 성지순례

일시 1.6 이탈리아 11일(히년 전대사)
2.11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5.12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참고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회관 619호(명동)
문의 010) 5235-3533 가톨릭여행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내용 국내입양상담
참고 www.holyfcac.or.kr
문의 02) 764-4741~3

대천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내용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 (인근 성지)갈매꽃 순교 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방법 '요나 성당 연수원' 검색
참고 yonaresort.modoo.at
문의 041) 934-7758 요나 성당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담당 노경덕 신부
문의 010) 3201-0520 꼬메스심리상담소

다솜터심리상담소

상담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 9146-7654 다솜터심리상담소

교구 내 병원 원목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문의 031) 412-5447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문의 031) 787-1877
성남시의료원
문의 031) 730-4501
아주대학교 병원
문의 031) 211-5419
용인 세브란스병원
문의 031) 329-7725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문의 02) 2610-9466
평택 성모병원
문의 070) 5012-367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문의 031) 8086-297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문의 031) 380-4187

『2024년 대림판공문제집』

- 기쁨과 희망 -

| 방법 | '천주교 수원교구 사목연구소 (<https://pastor.casuwon.or.kr>)' 홈페이지

[사목자료] > [전례 교리 자료] 게시판 > 2024년 대림판공문제집 파일 다운로드

| 문의 | 031) 360-7631 교구 복음화국

2027 WYD 수원교구 SNS 소통 채널 “하늘다리” 오픈!

<하늘다리> SNS 팔로우하고
WYD 소식을 확인하세요

채용·봉사자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구산 성지 관리장 / 채용 시
기산 본당 사무장 / 채용 시
남한산성 성지 관리원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분당성마태오 본당 솔리스트 / 채용 시
분당이매동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철산 본당 지휘자·반주자 / 채용 시
평촌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직원

대상 관리원(관사 제공 가능)
조건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교적 사본
마감 채용 시
문의 031) 452-4071 아론의 집

교구청 구내 카페(어울림) 파트타임

일시 주 4일 근무(요일 협의 가능)
12:00~15:00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각 1부
마감 11.25(월) 17:30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biz@casuwon.or.kr)
문의 031) 271-5028 교구청 관리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직원

대상 사무직원(계약직 2년)
자격 세례 받은 후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주임신부 추천서
마감 11.29(금) 17:00
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
문의 031) 246-3660 교구 평협

성 빈센트 병원 자원봉사자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대상 65세 미만(남·여) 봉사원하시는 분
문의 031) 249-7018, 7019
성 빈센트 병원 자원봉사팀

성소모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일시 상시(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미리내 수도회 본원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내용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 모집
문의 010) 5195-321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부

<11월 17일자 수원주보 7면 정답>



▲ 당첨자 확인



▲ 그림파일 다운로드

※ 원본파일(숨은 그림 찾기, 가로 세로 퀴즈, 퍼즐)을
다운로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알림광고 신청 안내



- 자 격** 소속 교구에서 정식으로 인준받은 단체
- 제출 서류** ① 소속단체증명서 : 연 1회 제출
② 여행사(성지순례) : 연 1회 서류(최근 3개월 이내 교적 사본, 사업자 등록증) 제출
- 내 용** ① 내용 : 미사, 피정, 세미나, 성소모임, 교육, 모집, 성지순례
※ 내용 수정 및 취소는 게재일의 4주 전까지 가능(이후 수정 및 취소 불가)
② 게재 횟수 : 동일 내용으로 월 2회 가능
③ 편집 : 홍보국 기준에 따름
- 비 용** ① 1줄당 1만5천 원(띄어쓰기 포함 15-20자 이내) ② 성소모임 2줄당 1만 원 ③ 제목, 연락처 포함 최대 10줄까지 가능
- 2025년 알림 광고 신청 일정(선착순 접수)**

신 청 일	광고 게재 월	신 청 일	광고 게재 월
1.2(목) 09:00	3 ~ 4	7.1(화) 09:00	9 ~ 10
3.4(화) 09:00	5 ~ 6	9.1(월) 09:00	11 ~ 12
5.1(목) 09:00	7 ~ 8	11.3(월) 09:00	2026. 1 ~ 2

6. 문 의 031) 242-8081 수원교구 홍보국



갯등중창단
열 번째 노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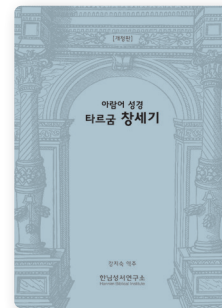
<함께 걸어주소서>

수원가톨릭대학교 갯등중창단이 2024년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 앨범 “함께 걸어주소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노래 기도가 하느님 사랑 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이 노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께 작은 힘과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딧기

유딧기는 탁월한 성덕과 용기를 지닌 유다인 과부 유딧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군대의 침입을 막아내고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유딧기는 토빗기, 에스테르기와 함께 ‘교훈문학적 역사서’에 속합니다.



아람어 성경
타르굼 창세기

이 책은 ‘타르굼 웅켈로스’ 창세기 번역본을 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창세기의 문맥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유다인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참 고 | 유튜브 “수원가톨릭대학교”
티저 및 샘플러 음원 감상 가능
문 의 | 031) 290-8802
수원가톨릭대학교

글 · 출판 | 강수원·바오로딸
금 액 | 2만3천 원
문 의 | 02) 944-0944

글 · 출판 | 강지숙·한남성서연구소
금 액 | 3만5천 원
문 의 | 031) 846-3467

수원가톨릭대학교 부설 하상신학원 2025학년도 하상신학원 신입생 모집

- | 원 서 교 부 | 2024.12.2(월)~2025.1.10(금)
- | 원 서 접 수 | 2025.1.2(목)~10(금). 홈페이지 접수
- | 전 형 일 자 | 2025.1.14(화) 14:00. 필기시험 후 면접
- | 합격자발표 | 2025.1.16(목) 10:00. 홈페이지

※ 정규과정 졸업후 심화과정 이수시
교구장 명의의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 : 031)290-8898 www.hasang.ac.kr